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http://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iny](https://facebook.com/groups/yagfyi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쾨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mailto: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15,1-2. 22-29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 4 참조)



(후렴)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제 2 독서]..... 요한묵시록 21,10-14.22-23(또는22,12-14.16-17.2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요한 14,23-29(또는 17,20-26)

[성가안내]

- 입당성가 [144] 주의 열이
- 봉헌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 파견성가 [238] 자모신 마리아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의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이 영우, 이 태묘 정 정옥 스테파노 이 미자 안나 김 정숙 (영혼을 위하여) 김 용기 요셉	가족 이 상홍 스테파노 정 유나 실비아 가족 김 보현 엘리사벳 양 미숙 마리아 양 미숙 마리아
생미사	봉헌
박 혜화 도미니카, 이 영애 레지나 조셉 아리 마테오, 전캐빈의 가족 모두 헬레나, 요안나 그 외 이 정근 미카엘, 이 증호 올리안나 송 상호 미카엘 부부 공 미진 마르시아 김 주원 루시아	풍물패 '신명' 울릿다 김 경련 이 정현 헬레나 박 카타리나 박 카타리나 김 베네딕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5월22일	정동주 유스토	김유화 데레사	김은아 미카엘라	김유화 데레사	양미숙 마리아	김진수 대건 안드레아	이지연 안젤라
5월29일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목 알버트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유정옥 유스티나	김승현 마리아	조소연 마르티나

● '25주년 기념 바자' 6월 5일입니다.

본당 모든 신자들과 모든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되는 기쁨의 축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 바자 후원금 받습니다.

문의 : 백 승민 안드레아 929-888-0483

- 바자 기증 물품, 옷 후원 받습니다. (신발 제외)

문의 : 유 정옥 유스티나 323-684-6588

● 사목협의회 월례회 있습니다.

오늘, 5월 22일 주일 미사 후 11시 2층 컨퍼런스 룸

● 풍물패 '신명' 연습 있습니다.

오늘, 5월 22일 오후 2시~4시 교육관 3A

● 축하와 기도 해 주세요.

다음 주일, 5월 29일 예수 승천 대축일 미사 중 지난해 9월부터 예비자 교리를 받아온 5명의 형제자매들이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아들과 딸,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로 태어납니다.

● 청년 미사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 장 소 / 시간 : 아랫성당 / 오후 6시
- 청년 전례부 모임 : 오후 4시 30분 아랫성당
- 청년 찬양팀 모임 : 오후 3시 ~ 5시 교육관 3층 성가대실

\*\* 팬데믹으로 중단 되었던 '청년 미사'가 재계된 첫날, 지난주 토요일, 5월 14일 52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했습니다.

● 청년 'Zoom' 묵주의 기도 (레지오)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Passcode : 368464

● 미동북부 제78차 ME 부부 주말에 초대합니다.

- 일 시 : 2022년 5월 28일 ~ 30일
- 장 소 : 뉴욕 헌팅턴 신학교 (롱 아일랜드)
- 참가비 : \$100
- 신청문의 :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철순 스테파노 부부  
646-322-3484 Chriskim04@gmail.com

● 뉴욕 대교구 분담금 자유로이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분담금입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 성모 성월 기도

(마리아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 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A

###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 [2022년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 젊은이들이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chap@nestseekers.com  
(917)370-0394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주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

광고주를 찾습니다  
☺

###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 오늘의 복음 묵상

- 요한 14,23-29(또는 17,20-26) -

요한이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성령을 약속하시다' 이야기입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미래의 시간'을 예감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주님께서 더나실 것이지만, '먼 미래' 그러나 머지않아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오시어 제자들과 함께 머무를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실 것이니, 그 사이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이 기쁨을 앞당겨 누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가 열리다'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시켜 주시는 보호자 역할을 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초대 교회를 위하여 활동하셨던 좋은 예를 오늘의 독서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분쟁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야고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도회의가 결정한 내용을 적은 편지는 분명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형제들은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은 '새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먼 미래'의 장면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석 같은 광채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어린양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성문에 적힌 열두 지파의 이름과 초석에 적혀 있는 열두 사도의 이름은 거룩한 성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는데, 거기 현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어린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해와 달도 필요없이 하느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 홍성남 신부의 특 쏘는 영성 사랑 "인생은 선택"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변명처럼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 이름거나 해로운 것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살이 찌서 고민인 사람은 식사를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식사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서 살찐 걸 후회한다면 어떤 바보가 동의해줄까요?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삽니다.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다는 분들이 상담소를 찾아와서 상대방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누구일까요? '속아서 했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하는 말들은 결국 자신이 덜 떨어진 사람이란 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력하고 양육 능력 없는 부모를 아이들이 비난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를 비난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자기 부모하고 똑같은 사람밖에는 못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난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부모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자기는 다른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본인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집니다. 지금 나의 삶이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꼰대유머'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본당 신부가 병자 방문을 가려하는데 성직자 옷을 입을 게 귀찮아서 보좌신부에게 정식복장을 하라하고 자기는 사복을 입고 운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과속을 해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주임신부는 순간 기지를 발휘하여서 뒷좌석의 보좌신부를 가리키며 "신부님이 급하게 병자방문을 하셔야 돼서 과속했습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아,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가셔야지요. 이번에는 신부님을 봐서 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이게 웬일이냐.'

그 다음번에는 본인이 사제복을 입고서 운전하다가 또 걸렸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그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신부를 보더니 "아, 법을 잘 지키셔야 할 분이 어기시면 안 되지요"하면서 딱지를 끊었습니다.

본당신부가 경찰에게 따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좌신부를 보고 봐주더니 이번에는 왜 안 봐주는 거요"라고 하자 경찰 왈 "내 마음이지요" 하더라고요.